

# 김석범 대하소설 『화산도』에 나타난 장소와 공간의 의미

— 밀항, 이카이노, 경성(서울)에 대한 묘사를 중심으로

권 성 우\*

## 요약

김석범 작가의 대하소설 『화산도』에는 공간과 장소에 대한 정밀한 묘사와 밀항으로 대변되는 불법적 공간 이동 등 공간에 대한 민감한 감각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화산도』에서 공간과 장소, 공간 이동은 작품 스토리 전개와 작가의 사유를 전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기능한다. 『화산도』의 무대는 소설 서사의 주 공간인 제주를 물론이거니와, 경성(서울), 목포, 부산, 일본 도쿄, 교토, 오사카 등을 포괄한다. 『화산도』에 대해 탐구한다는 것은 작품 속의 공간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작가의 문제의식, 장소의 인문지리학을 탐구하는 과정과 연결된다.

실제 김석범은 『화산도』 1부 집필을 위한 현장 답사를 거의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억, 상상력, 자료, 증언을 활용해서 대하소설 『화산도』를 썼다. 제주, 서울, 이카이노 등의 공간에 대한 집요한 탐색과 장악, 기억이 동원되지 않았더라면, 『화산도』가 창작될 수 없었을 것이다. 『화산도』 전권을 통해, '밀항'은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소재이자 내용이다. 『화산도』의 밀항 장면에는 밀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회 정치적 맥락, 밀항에 대한 정념과 욕망이 생생하게 묘사돼 있다. 『화산도』에서 이토록 밀항에 대한 농밀하고 생생한 묘사가 가능했던 것은 무엇보다 작가 김석범이 밀항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이다. 한편 작가 김석범을 조국의 운명과 민족의 진로에 대해 고뇌하는 청년으로 키운 것은 오사카 한인공동체 거주지인 이카이노의 민족적 분위기였다. 한 사람의 작가로서의 김석범의 여정에는 이카이노라는 장소가 깊이 각인돼 있다.

\*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부·한국어문화연구소 교수

『화산도』에는 해방 직후 서울 중심부와 그 인근의 공간, 음식문화, 거리 풍경이 매우 세밀하고 생생하게 묘사된다. 『화산도』는 식민의 흔적이 깊이 배어든 경성(서울) 중심부 공간에 대한 밀도 깊은 묘사를 통해, 해방 후에도 여전히 그곳이 식민주의가 작동하는 장소임을 극명하게 환기한다.

주제어: 김석범, 화산도, 장소, 공간, 이카이노, 밀항, 경성

목차

1. 서론: 『화산도』의 공간과 장소
2. 공간 감각과 작가의 기억
3. 밀항: 공간 이동을 향한 욕망과 정념
4. 이카이노: 재일조선인의 공동체
5. 경성(서울) 중심지에 대한 묘사
6. 결론

## 1. 서론: 『화산도』의 공간과 장소

왼쪽의 남대문길 모퉁이에 한국은행의 석조건물 돔이 밤하늘 밝은 빛에 반사되어 그림자를 뚜렷이 부각시키고 있었다. 화강암을 쌓아 올린 건물의 네 귀퉁이가 각각 돔 형식을 취한 르네상스풍의 당당한 건축물은, 일본은행 본점을 본떠 만들었다고 한다. 서울역, 과거의 경성역도 마찬가지로 르네상스 풍의 도쿄 역과 닮아 있었다. (7:193)<sup>1)</sup>

펼러는 보통의 다방보다 훨씬 넓었다. 해방 전에는 일본의 제과회사가 직영한, 지금의 충무로, 당시에는 일본인들의 메인스트리트인 혼초(本町) 거리 중에서도 현대식 가게의 하나로, 2층은 식민지 지배하의 문사들이

1) 인용문 뒤 괄호 안의 숫자는 김석범 대하소설 『화산도』(김환기·김학동 역, 보고서, 2015)의 권수와 면수를 의미한다.

자주 회합을 갖던 곳이다. (6:232)

위 대목은 『화산도』에 등장하는 당시 서울(경성) 도심을 묘사한 인상적인 구절이다. 해방 직후에도 여전히 작동하던 식민의 문화적 흔적이 위의 문장들에 울울이 아로새겨져 있다. 재일조선인 작가 김석범(金石範, 1925~)의 필생의 문체작 대하소설 『화산도』(전 12권, 일본어판 1997, 한국어판 2015)에는 공간과 장소에 대한 정밀한 묘사와 밀항으로 대변되는 불법적 공간 이동 등 공간에 대한 민감한 감각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이 작품은 무대는 소설 서사의 주 공간인 제주를 물론이거니와, 경성(서울), 목포, 부산, 일본 도쿄, 교토, 오사카, 고베, 시모노세키 등을 포괄한다. 특히 『화산도』는 제주의 인문지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제주 곳곳의 장소와 공간, 풍속, 음식, 관혼상제, 문화 등을 담은 대하소설이다.<sup>2)</sup> 그러나 『화산도』는 단지 제주를 공간적 배경으로 한 소설에 머물지 않는다. 이 작품은 제주 지역과 공간에 대한 묘사에서 더 나아가, 해방 직후 서울(경성) 중심부 공간과 심상지리, 오사카 조선인 마을인 이카이노(猪飼野) 지역, 도쿄, 고베 등의 공간을 상세하고 정밀하게 묘사한다. 또한 『화산도』는 제주에서 성내(안)와 성밖의 대비, 제주도와 서울의 대비, 남한과 일본의 대비 등, 공간 분할을 통해, 이질적인 공간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소설이기도 하다.

공간 이동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화산도』는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즉 섬에서 육지로, 육지에서 섬으로, 일본에서 고향 제주로, 남한에서 일본으로 자신의 근거를 옮기고자 하는 사람들의 필사적인 욕망과 의지를 형상화한 소설이다. 이런 의미에서 『화산도』는 다양한 방식으로 공간

2) 『화산도』에 나타난 제주의 공간에 대해서는 데이비드 하비의 도시공간론을 원용하여 『화산도』에 나타난 제주 성내 공간을 분석한 김동현의 논문 「공간의 로컬리티와 서사적 재현양상」(『한민족문화연구』 53집, 2016), 「김석범 문학과 제주·장소의 탄생과 기억(주체의 발견)」(『영주어문』 35호, 2017)이 주목된다.

이동을 향한 열망과 정념을 다룬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화산도』에서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밀항은 당시 불법적인 방식을 통한 장소와 장소 사이의 이동 장면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밀항은 대하소설 『화산도』의 가장 핵심적인 서사 모티프이자 인문지리적 스토리를 구성한다. 그 밀항을 통해 고향을 떠나 낯선 공간으로 이동한 사람들이 새로운 인생의 닦을 내린 장소가 주로 오사카 이카이노 지역이었다. 한편 『화산도』에서 이루어진 해방 직후 서울(경성)의 묘사는 작품의 주 무대인 제주에 대한 묘사와 현격히 대비된다. 제주는 주인공 이방근의 고향이자 상대적으로 민속, 전통, 굿, 무속(巫俗) 등이 여전히 강력하게 온존하는 공간이다. 이에 비해 『화산도』에서 묘사된 당시 서울(경성)은 근대도시의 다양한 문물과 풍속, 식민주의와 연루된 근대성, 첨단 세련된 모더니티가 펼쳐지는 공간이다.

이렇듯 『화산도』에서 공간과 장소, 공간 이동은 작품 스토리 전개와 작가의 사유를 전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기능한다. 그렇다면 『화산도』를 탐구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공간과 장소는 생활 세계의 기본적인 구성요소이다.”<sup>3)</sup>라고 갈파했던 이-푸 투안(Yi-Fu Tuan)의 표현은 ‘공간과 장소는 소설의 기본적인 구성요소이다’라고 변주해도 좋을 것이다.<sup>4)</sup>

지금까지 제주의 공간을 중심으로 진행된 『화산도』에 나타난 장소와 공간에 대한 탐색은 이제 작품의 또 다른 중요한 공간적 무대인 일본의 이카이노와 경성(서울), 그리고 밀항에 대한 탐색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화산도』에 나타난 공간과 장소에 대한 감각이 주인공의 마음이나 사유로 구현되는 심상지리(心象地理)적 요소에 주목하면서, 기존의 『화산도』 연구에서 충분히 언급되지 않은 ‘밀항’에 대한 형상화, 서울(경성) 중심부와 이카이노 묘사가 지닌 의미를 탐구하기 위한 시도이다.

3) 이-푸 투안(Yi-Fu Tuan), 구동희 역, 『공간과 장소』, 2005, 대운, 15면.

4) 대하소설 『화산도』를 온전히 읽는 방법의 하나는 바로 소설의 무대인 공간 묘사에 스며든 작가의 문제의식과 정치적 무의식을 감지하면서 작품을 독해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 같은 학문적 문제의식에 의해 발표된 논의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sup>5)</sup> 이 논문이 지닌 또 하나의 목적은 『화산도』에 나타난 공간과 장소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김석범 작가를 만나서 나눈 대화를 소개하는 데 있다.<sup>6)</sup>

## 2. 공간 감각과 작가의 기억

작가 김석범은 1976년부터 1997년까지 장장 21년이라는 오랜 세월에 걸쳐 제주 4.3사건을 주 배경으로 한 대하소설 『화산도』를 창작했다. 제주, 서울, 목포 등의 거리와 공간 묘사가 자주 등장하는 『화산도』 집필 과정에서 현장 답사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자 필수적인 과정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김석범은 『화산도』 집필을 위한 현장 답사를 거의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억, 상상력, 자료(신문기사 등), 증언을 활용해서 1983년 『화산도』 1부를 완성했다. 그는 일본으로 밀항한 지 42년여 만인 1988년 11월에야 『화산도』 1부 한국어 번역 출간을 계기로 비로소 제주를 비롯한 서울 땅을 다시 밟아볼 수 있었다. 말하자면 김석범은 공간과 장소에 대한 철저한 장악이 필요한 대하소설 『화산도』의 상당 부분을 현장 답사 없이, 단지 기억, 상상력, 자료, 증언 채록에 기반하여 쓴 것이다.

한국을 방문하기 전 오랜 세월 동안 김석범 작가는 실제로 밀항한 4.3 체험자들이 그에게 털어놓은 통탄의 증언을 하나하나 채록하고, 해방 전

5) 필자의 『망명, 혹은 밀항의 상상력』(『비평의 고독』, 소명출판, 2015)이라는 평문에서 『화산도』에서 ‘밀항’과 ‘이카이노’ 지역이 지니는 의미가 간단히 언급돼 있다. 이 논문은 ‘망명, 혹은 밀항의 상상력’의 문제의식을 전전시키고 심화하여, 『화산도』에 드러난 ‘밀항’, ‘이카이노’, ‘서울(경성)’ 등 장소와 공간의 의미에 관해 본격적으로 탐구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6) 이 글의 문제의식을 작가 김석범의 기억과 발언을 통해 확인하기 위해 2019년 10월 18일, 도쿄 진보초에 있는 쿠온출판사에서 작가 김석범과 만나 약 2시간에 걸쳐 『화산도』에 나타난 공간과 장소의 의미에 관해 대화를 나누었다.

의 제주에 거주하던 기억과 해방 직후의 제주 체류 체험에 의존해 제주도 지도를 일일이 그리면서 대하소설 『화산도』를 작성했다. 그는 한창 『화산도』 2부를 집필 중이던 1991년, 제주 등의 현장 취재를 목적으로 한국 정부에 입국 신청을 하지만 결국에는 조선작(朝鮮籍)이라는 이유로 허가를 받지 못했다.<sup>7)</sup> 1988년에 한국에 입국했던 김석범 작가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정부의 정책이 뒤바뀜에 따라 입국이 불허되었다. 그와 관련하여 김석범은 “나의 고향 땅에 취재조차 하러 가지 못한 채 집필을 계속한 것이 가장 괴로웠다고 털어놓지 않을 수 없다. 상상력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제민일보』, 2012.3.30.)라고 토로했다.

김석범은 작품의 현장을 직접 방문할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 나카무라 일성(中村一成)과의 인터뷰에서 “역시 가장 괴로운 것은 현지에 갈 수 없는 것. 단순히 취재한다는 의미만은 아니에요. 풍경을 접하거나, 고향의 냄새, 바다의 냄새를 맡고, 땅을 밟는 것만으로도 작가의 감각적인 것이 가슴속에서 부풀어 오르는 것입니다. 그것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sup>8)</sup>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고백한 바 있다. 이 대목은 작품현장에 대한 감각,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부풀어 오르는 작품 공간에 대한 느낌 없이 작품을 쓴다는 것의 막막함을 강조하고 있다.

1988년 11월, 1946년 6월 말경 해방을 한 달 반 앞두고 일본으로 밀항한 지 42년 만에 제주를 둘러보며, 김석범 작가는 『화산도』 1부에서 묘사된 제주의 공간과 장소, 구석구석 모습이 실제 공간과 커다란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천만다행이라는 심정으로 확인한다. 이 좁은 공간에 대한 작가 김석범의 기억력이 비상했으며 작가가 제주도 지역 자료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에 대한 면밀한 파악에 철저했기 때문일 것이다. 1991년 한국 입국 신청 때 거부되어 『화산도』 2부 창작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1988년

7) 오은영, 『제일조선인문학에 있어서 조선적인 것 김석범 작품을 중심으로』, 선인, 2014, 257면.

8) 나카무라 일성(中村一成), 정기문 역, 『사상으로서의 조선작(朝鮮籍)』, 보고사, 2020, 248면.  
中村一成, 『ルポ 思想としての朝鮮籍』, 岩波書店, 2017, 185면.

이후 활발하게 간행된 해방 전후사 연관 책, 제주 4·3 연관 자료들이 저자에게 『화산도』를 쓰는데 커다란 참고가 됐다. 결국 『화산도』는 연재 후 수정을 거쳐 1997년에야 200자 원고지 22,000매 분량의 대하소설로 완간된다.

제주 4.3이라는 현장에 부재했지만, 김석범은 자신의 고향 제주에서 발생한 미증유의 역사적 비극에 대한 분노를 동력 삼아, 1976년부터 1997년까지 21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대하소설 『화산도』를 창작했다.<sup>9)</sup> 이 점을 통해, 공간과 현장에 대한 예민하고 철저한 감각과 더불어, 살아남은 자의 슬픔과 분노에서 연유한 증언에 대한 작가 김석범의 투철한 의지가 대하소설 『화산도』를 낳은 중요한 심리적 요인임을 알 수 있다.<sup>10)</sup> 그러나 제주, 서울, 이카이노 등의 공간에 대한 집요한 탐색과 장악, 기억, 공부의 동반되지 않았더라면, 『화산도』가 창작될 수 없었다는 사실도 분명하다.

### 3. 밀항: 공간 이동을 향한 열망과 정념

『화산도』 전권을 통해, ‘밀항’은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소재이자 주요 모티프이다. 『화산도』에는 거의 매권마다 밀항 장면이 등장한다. 그 밀항은 『화산도』 작품 내에서 제주도에서 국내 본토로의 밀항, 제주도에서 일본으로의 밀항, 일본에서 제주도로의 밀항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밀항 장면에는 (일본으로의) 밀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회 정치적 맥락,

9) 이에 비해 김시중 시인은 4.3 현장에 온몸으로 투신한 입장이었기에 오히려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이 4.3의 적극적인 가담자였다는 사실을 밝히지 못했으며, 4.3이라는 주제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작품을 쓰지 못했다. 매우 역설적인 차이다. 이에 대해서는 김석범·김시중 대담 『왜 계속 써왔는가, 왜 침묵해 왔는가』(제주대 출판부, 2007), 김시중 자전 『조선과 일본에 살다』(윤여일 역, 돌베개, 2016)를 참조할 것.

10) 『제주 4·3 70년 특집: 살아남은 자의 슬픔과 분노를 읽다』, 『한겨레21』, 1204호, 2018.3.20.

밀항에 대한 정념과 욕망이 생생하게 묘사돼 있다.

‘밀항’은 “정규의 출입국 절차를 밟지 않고 국경을 건너는 행위를 말한다. 근대국가에서 밀항은 외부자들의 부당한 영토침범이자 범법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국가가 물리적 폭력을 작동시키는 가장 정당한 근거가 된다.”<sup>11)</sup> 그렇기에 밀항은 해방 직후 당시로는 목숨을 건 공간 이동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공간 이동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화산도』는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즉 섬에서 육지로, 육지에서 섬으로, 일본에서 고향 제주로, 남한에서 일본으로 자신의 근거를 옮기고자 하는 사람들의 필사적인 욕망과 의지를 형상화한 소설이다. 이런 의미에서 『화산도』는 다양한 방식으로 공간 이동을 향한 열망과 정념을 다룬 작품이다. 그 정념의 가장 은밀하고 극단적 방식은 ‘밀항’(密航)이다.

『화산도』에서 묘사된 밀항이라는 소재는 그동안 한국소설이 충분히 형상화하지 못한 문제적 장면이다.<sup>12)</sup> 『화산도』에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탄압을 피해 제주도에서 일본으로 밀항하는 얘기, 해방 직후 혼란스럽고 빈궁한 제주를 벗어나 조금이라도 평화롭고 안정된 공간인 일본행을 욕망하는 장면이 수시로 등장한다. 다음 예문들을 검토해보자.

조국과 비교해 볼 때 일본은 너무나 평화로웠다. 이러한 일본으로 남한은 물론 제주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밀항해 왔다. (….) 현재 남한의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 일본으로 입국하려 하고 있다……. (2:383)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밀항하고 있어요. 제주도만이 아니라, 서울에서도 학생들이 자꾸만 사라져 일본으로 건너가고 있어요……. (5:106)

11) 조경희, 『불완전한 영토, ‘밀항’하는 일상-해방 이후 70년대까지 제주인들의 일본 밀항, 『사회와 역사』 106집, 2015, 40면.

12) ‘밀항’을 주제로 한 한인 작가의 소설로는 손소희의 『현해탄』(1948), 김달수의 『밀항자』(1963), 박경리의 『파시』(1964), 김용성의 『밀항』(1979) 등을 열거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섬을 떠나 자꾸만 일본으로 가고 있어요, 이 나라에, 이 섬에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땅이지요. (7:443)

이 섬의 밀항자들에게 앞으로 풍파를 넘어 향하는 행선지에 희망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있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었고, 지금 섬에서 탈출하는 것 자체가 희망이며 목숨을 부지하는 길이었다. (12:254)

제주 4.3사건의 과정에서 경찰과 군경에 쫓겼던 수많은 사람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밀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좌우익의 격렬한 갈등, 친일파와 서북청년단의 득세, 곤궁한 경제 상황, 4.3의 발생은 기본적인 생활과 안정적 일상을 유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평화롭고 풍요로운 일본을 향한 밀항은 당대의 제주인에게 매우 은밀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기획이었다. 물론 그 기획이 누구에게나 달성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밀항을 위해서는 엄청난 돈과 정보, 인맥이 필요했다.<sup>13)</sup> 동시에 그 기획은 기존의 모든 재산과 인연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자 때로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도박이었다. 4·3으로 인한 밀항자들의 절박한 선택과 처절한 심경에 대한 묘사가 『화산도』에 생생하게 묘사된다.

밀항자 중에는 해방 직후 일본에서 제주로 귀환한 사람들이 특히 많았다. 『화산도』에도 묘사되었듯이, 당시 “게릴라의 지도부가 일본에서 돌아온 학도병 출신의 청년들이 주력”(2:414)이었다. 실제 김시중 시인은 “다다미 반 첩 정도 되는 내부에는 예닐곱 명의 남녀가 꼭 들어차 있었습니다. 고약한 중유 냄새 등이 섞인 악취가 워낙 심해 도저히 비집고 들어갈 수 없었는데, 안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일본으로 되돌아가는 해방 직후

13) 예를 들어 김시중 시인은 우편국 사건으로 인한 제주도에서의 도피와 밀항 과정을 설명하면서 “외아들을 살리려고 아버지 어머니는 그 정도로 연줄도 돈도 다 동원했던 겁니다.”라고 적었다. 김석범·김시중 대담(문경수 편: 이경원·오정은 역), 『왜 계속 써왔는가, 왜 침묵해 왔는가』, 제주대출판부, 2007, 93면.

의 ‘귀환자들이었습니다.’라며 자신이 탔던 밀항선 내부의 인적 구성에 관해 언급한 바 있다.<sup>14)</sup> 서경식 역시 『언어의 감옥에서: 어느 재일조선인의 초상』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작은 아버지처럼 일단 조선에 귀환한 후,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려 한 조선인의 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수만 명 이상이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의 선택은 모두 살기 위해서 해야만 했던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GHQ와 일본 정부는 이 사람들이 당시에는 법적으로 일본 국적 보유자임에도 이들의 일본 입국을 거부하고 이들을 검거해 나가사키 현 오무라 시에 건설한 수용소에 가둔 다음, 강제 송환했다. 이 사람들에게 송환은 사형과 다름없는 처분이었다. 실제로 오무라 수용소에서는 송환을 거부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었다.<sup>15)</sup>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실제 이런 사람들이 슬하에 존재했다. 일본에서 활동하는 재일 3세 한인 사진가 이봉언은 고령의 재일동포들을 인터뷰한 기록을 통해 일본에서 조국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에 대해 “배가 하마다 항에서 나갔지. 엄청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지만, 조선에서는 살기 어렵다고 일본에 돌아왔어. 그때 나도 돌아갔으면 한국 전쟁 때 죽었을 거야.”<sup>16)</sup>라고 일본에 다시 돌아온 한인들의 심경을 전했다.

“조선에 가면 목숨은 건진다. 인간답게 살 수 있다. 어떻게든 먹고는 산다. 일본에 있는 조선인은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1년 후 일본으로 되돌아오는 밀항선은 끊이지 않았다.”<sup>17)</sup>는 증언은 당시 재일 한인 사이에 조국에 대한 환상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러나 조국에 현

14) 김시중, 『조선과 일본에 살다』, 돌베개, 2016, 224면.

15) 서경식, 권혁태 역, 『언어의 감옥에서: 어느 재일조선인의 초상』, 돌베개, 2011, 176면.

16) 이봉언, 윤상익 역, 『재일동포 1세, 기억의 저편』, 동아시아, 2009, 144면.

17) 위의 책, 405면.

실은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경제나 정치 모든 면에서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 일본에서의 생활 감각을 이미 지닌 그들 상당수의 선택은 여러 가지 난관과 불안을 감수하면서 밀항선을 타고 일본으로 재귀환하는 것이었다.

일본에 살다가 해방된 고향 제주로 돌아온 사람들의 시좌(視座)에서 보면, 해방 직후의 제주는 일본과 비교해 매우 열악하고 혼란스러운 땅이었다. ‘밀항’은 『화산도』의 다음 예문들에서 드러나듯이, 일본에서 귀환한 재일 한인이 마주한 조국의 열악한 현실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금년 1월 대대적인 검속(국민학생까지 체포되어 면사무소와 학교 교실이 유치장 대신 사용되었다)이 있는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당국의 회유정책으로 석방된 사람들 가운데는 섬을 탈출하여 일본으로 밀항한 사람이 많았다. 거의 매일처럼 누가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풍문이 들려왔다. (...) 그들 대부분은 해방 후 자신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조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었다. (1:226)

수만이 넘는 재일 제주 출신자가 신생 조국에 희망을 품고 고향에 돌아왔지만, 미군정하 남조선의, 패전국 일본과도 비교가 안 될 만큼 무서운 현실에 배신당해,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는 쉽지 않은 길을 택했다. 현기림 역시 자식들이 있는 일본 땅으로의 재도항을 생각하면서도, 결국 조국에 붙어사는 형편이었다. (9:229)

첫 번째 예문에서 ‘금년 1월’은 1948년 1월을 의미한다. 이 점은 4·3 이전에도 남한의 현실에 절망해 일본으로 밀항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려준다. 여기서 그 밀항자 중의 상당수가 일본에서 건너온 귀환자들이라는 사실이 흥미롭다. 4·3에 대한 극심한 탄압과 더불어, 일본보다 더 열악한 제주의 형편은 그들을 밀항으로 이끈 또 하나의 동인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예문에서는 조국으로 귀환한 동포들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는 험난한 길, 즉 밀항을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 적시하고 있다. 당시 제주도의 열악한 경제적 현실, 좌우의 격렬한 분열로 인한 혼란스러운 정국, 미군정과 경찰의 극심한 탄압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건 밀항의 길로 나서게 하는 것이다.

『화산도』에서 묘사되는 밀항 과정에 대한 묘사는 매우 구체적이며 박진감이 넘친다. 특히 『화산도』 2권에서 남승지가 조직의 리더 강몽구와 함께 항쟁에 필요한 자금과 물품을 조달하기 위해 심야 밀항선을 타고 일본으로 향하는 장면은 『화산도』 전편을 통해서도 가장 흥미진진하며 박진감 있는 스토리를 구현한다. 밀항선을 타기 위한 준비와 주선과정, 밀항선을 탄 사람들의 마음에 도사린 불안과 초조, 밀항선 내부의 모습, 일본으로의 힘겨운 항해 과정, 일본 해안에 상륙한 후의 난관 등이 『화산도』 2권에서 생생하게 묘사된다.<sup>18)</sup> 강몽구와 남승지, 즉 항쟁의 주체들이 제주와 일본을 왕복 밀항하여 재일조선인의 도움을 얻는 『화산도』 초반부의 밀항 서사는 한국 현대소설 전반을 통해서 아직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영역이다.<sup>19)</sup> 가족(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하는 일본에서의 안온한 삶을 등지고 항쟁을 위해 다시 험하고 곤궁한 상황에 놓인 고향 제주로 귀환(밀항)하는 남승지는 『화산도』에서 등장하는 어떤 인물보다도 순정하며 고결한 혁명가의 면모를 지니고 있다.<sup>20)</sup>

밀항은 곧 자신 생활 근거지를 완전히 포기하고 이국에서의 불안정한 삶을 설계하는 망명을 위한 과정이기도 하다. 밀항은 자신이 살아온 땅에서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의 목숨을 건 인생의 마지막 선택이자 도박이다.

18) 권성우, 「망명, 혹은 밀항의 상상력」, 『비평의 고독』, 소명출판, 2016, 351면,

19) 최근에는 역사학 및 사회과학 분야에서 '밀항'에 대한 연구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권혁태·이정은·조경희가 편한 『주권의 야만:밀항, 수용소, 재일조선인』(한울, 2017) 1부 '국경 관리와 밀항'에 수록된 세 편의 논문은 밀항을 다룬 뜻깊은 성과이다.

20) 권성우, 앞의 글, 351~352면.

밀항자는 “영토 바깥을 향하는 원심적 흐름에 속하는 하나의 특정한 정체성”<sup>21)</sup>을 지닌 존재이다. 『화산도』의 주인공 이방근은 여동생 유원에게 “밀항하는 청년들도 모두 똑같다. 망명이야”(11:355)라고 말한다. 나중에 남승지와 유원도 결국 일본으로 밀항한다.<sup>22)</sup> 『화산도』를 온전히 이해하는 길은 다음과 같은 밀항을 선택한 사람들의 마음, 그 곡절과 상처를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밀항선의 선창처럼 마루방의 공간에 웅크린 밀항자들은 입을 다문 채, 방을 채워 가는 바로 옆의 바다 소리에 젖어들어, 눈만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다. 제각기 사정을 품고 있는 그들은 동료 사이가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악질적인 배신자는 태우지 않도록 사전에 신원 체크는 해 두었지만, 많은 ‘불법’ 출국자에게는 가슴에 묻어 둔 비밀도 있고 치유하기 어려운 심신의 상처도 있을 터였다. 드러내놓고 앞으로의 희망이나 기대를 남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12:254)

『화산도』 끝부분(12권)에는 밀항자들이 집중적으로 묘사된다. “밀항자 대부분은 필사적으로 긁어모은 돈으로 운임을 내는 것이고 그중에는 일본에 도착하면 육친이나 친척이 지불할 것이라고 애원하는 자도 있었다.”(12:253). 그들은 “돼지와 같은 삶이 되더라도 살아남지 않으면 살육자를 이겨낼 수 없다.”(12:266)는 처절한 각성 끝에, 미래에 대한 엄청난 불안과 불확실을 감수하며 결국 밀항선에 몸을 신는다

한편 『화산도』의 주인공 이방근은 혁명(항쟁)의 변절자 유달현을 제주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밀항선에서 집중적으로 심문한다 이 대목은 『화산도』 후반 서사의 백미라 부를 수 있는 문제적 장면이다. 대하소설 『화산

21) 김예림, 『현해탄의 정동-국가라는 '슬픔'의 체제와 밀항』, 『석당논집』 49집, 2011, 313면.

22) 『화산도』 후속편에 해당하는 『땅밑의 태양 地底の太陽』(集英社, 2006)과 『바다 밑에서 海の底から』(岩波書店, 2020)는 일본으로 밀항한 이후의 남승지와 이우원의 삶에 대해 다루고 있다.

도』의 가장 생생하고 박진감 있는 스토리는 주로 밀항선에서 발생한다. 4·3의 참화(慘禍)를 피해 밀항선에 오른 사람들의 처절한 공포와 착잡한 마음을 온전히 인식하는 것은 『화산도』 이해의 중요한 맥적이다.

『화산도』에서 이토록 밀항에 관한 세세하고 농밀한 묘사가 가능했던 것은 무엇보다 작가 김석범이 밀항을 수차례 직접 체험했기 때문이다. 김석범은 자신의 밀항 체험에 대해 “1946년 8월에 일본에 돌아갈 때 밀항선을 이용했다. 우선 서울에서 부산에 간 다음에, 아는 사람 통해서 배를 타고 규슈 하타카(博多) 인근에 상륙했다. 그 후에 어떻게 해서 기차를 타고 오사카까지 왔는지 기억이 없다. 당시 10톤급의 배로 밀항을 했는데, 그 때 그런 배를 타지 못했다면 밀항에 대해 못 썼을 것이다. 바다가 무섭다는 것을 크게 두 번 경험했다.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면 무서워서 죽을까 싶었다.”<sup>23)</sup>고 고백했다. 죽음까지 생각했던 그 체험이 『화산도』에 등장하는 밀항 스토리의 소중한 자산으로 작용했다. 작가의 말대로 그 밀항 체험이 없었다면 『화산도』의 밀항 장면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밀항 같은 극적인 체험의 경우, 직접체험 여부가 묘사의 가능성과 필진성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가를 『화산도』의 밀항 장면은 여실히 보여준다.

#### 4. 이카이노: 재일조선인의 공동체

『화산도』 2권과 3권에 걸쳐 집중적으로 묘사된 남승지와 강몽구의 일본 밀항 왕복 과정을 통해, 『화산도』는 당시 재일조선인(한인) 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 오사카 이카이노 지역을 둘러싼 재일조선인의 정념과 마음을 매우 섬세하고 생생하게 묘사한다. 남승지와 강몽구가 제주에서 일본

23) 김석범 작가와의 대화 중에서, 2019년 10월 18일 16.30~18.30, 도쿄 쿠온출판사 회의실에서 진행됨.

으로 밀항하여 다시 제주로 돌아오기까지의 약 열흘의 여정 『화산도』 2,3권에서 이 스토리가 집중적으로 형상화된다는 다음과 같다.

스리 방과제(제주)-밀항선-이키섬-간몬해협關門海峽-작은 항구(모지항과 시모노세키와 사이)-아마구치현 산요 본선 H시에 있는 역-재일조선인 문달길의 집-시모노세키-도쿄로 가는 특급열차-고베역-남승지의 형 남승일의 집-고베 산노미야역-오사카행 완행전차-오사카역-쓰루하시역鶴橋驛-국제시장-이카이노의 조선시장에서 멀지 않은 남승지 어머님댁-동해고무-오사카성(모리노미야역)-산노미야역-고베-오사카-고베-도쿄역-조련 건물-요요기 일본공산당 건물-우에노(여관 춘천장)-조련 본부-삼양고무-하타나카 의원(이용근)-우에노 여관-도쿄역-고베-사카이 U역-나카무라댁-어머님댁-오사카역-시모노세키-제주

이런 일본 체류 과정에서 이카이노는 매우 중요한 상징적 공간으로 기능한다. 재일조선인의 근거지인 오사카의 쓰루하시역鶴橋驛 인근의 조선인 마을 이카이노는 남승지의 집이 있던 곳이다. 『화산도』에서 그곳의 공간적 의미는 아래와 같이 묘사돼 있다.

조선인마을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이카이노 일대는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일본인이 싫어할 뿐 아니라, 이카이노에 살고 있는 조선인 청년들도 한 번쯤은 이카이노에서의 탈출을 시도한다. 재일조선인으로 태어난 반발심 때문에, 그들에게 ‘이카이노’는 민족차별과 치욕을 집약한 지역으로 여겨지는 탓이었다. 과거에 양준오도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데, 그것을 극복하고 난 후에 그는 열렬한 이카이노 예찬론자가 되었다. (3:212)

당시 재일조선인이 일본 사회에서 문화적으로, 공간적으로 유폐되어 있었음을 역력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현경은 “물리적인 의미에서 사회는 하나의 장소이며, 사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곧 이 장소에 대해 권

리를 갖는다는 것, 손님이자 주인으로서 환대받을 권리와 환대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sup>24)</sup>라고 주장한 바 있거니와, 이카이노 지역은 그런 환대에서 거리가 멀었던 공간, 즉 주류사회에서 배제된 소수자 민족 공동체의 구성원이 집단적으로 유폐되었던 계토에 가깝다. 그곳은 “일본에서는 오명(汚名)이 된 이름이라 거기 사는 주민 스스로 지워버려 지도에서 사라진 동네”<sup>25)</sup>이기도 하다. 실제로 “오사카 시 이쿠노 구라는 지역 주민세 수입의 25%는 재일조선인이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도 재일 조선인은 주민자치라는 시스템에서 배제되어 있는 것이다.”<sup>26)</sup> 김석희는 이런 이카이노라는 공간을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개념을 원용하여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이카이노를 빠져나가는 것이 꿈일 수밖에 없는 자이니치의 후세들은 여전히 자이니치를 살고 있다. 이카이노는 이제 실재하지 않는 공간이지만 실재하는 공간이며, 동시에 실재하는 공간이지만 실재하지 않는 공간이 되어 버렸다. 그곳은 모든 공간의 밖에 있는 공간을 의미하는 푸코적 개념의 공간, 헤테로토피아일 수밖에 없다.’<sup>27)</sup>

이와 같은 이카이노의 풍토와 상황을 누구보다 생생하게 체험했던 김석범이기에 『화산도』에서 지금은 사라진 지명 이카이노는 문제적 공간이자 의미 있는 표상으로 되살아난다.<sup>28)</sup> 『화산도』의 주요인물 양준오가 이카이노에 대한 혐오와 부정적 감정을 극복하고 끝내는 ‘열렬한 이카이노 예찬자’로 거듭나는 대목은 작가 김석범의 이카이노에 대한 남다른 관점

24)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지성사, 2015, 289면.

25) 이진경, 『김시중, 어긋남의 존재론』, 도서출판b, 2019, 157면.

26) 서경식, 『고통과 기억의 연대는 가능한가?』, 철수와영희, 2009, 292면.

27) 김석희, 『자이니치 문학, 헤테로토피아를 살다』, 『작가들』 63호, 2017, 173면.

28) 김석범은 필자와의 2019년 10월 18일 대화(도쿄 진보초 쿠온출판사 회의실에서 “이카이노야 내가 오래 살았으니까, 편의상 남승지의 집을 이카이노 지역으로 설정했어요, 이카이노 지역과 우리집은 다소 거리가 있었지만 워낙 자주 드나들었고 익숙했어요.”라고 언급했다.



과 자의식을 대변한다. 『화산도』에 분명히 드러나듯이 한 사람의 독립적인 재일조선인이 된다는 것은 ‘이카이노’에 대한 혐오와 환멸을 극복하는 과정이다. 그 시간은 궁극적으로 이카이노를 마음속에 떳떳하게 받아들이는 행로이기도 하다.<sup>29)</sup> 김석범이야말로 재일조선인으로서 이카이노에 대한 환멸과 혐오를 극복하면서, 재일(자이니치)의 자존심과 주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존재였다.

“오사카의 이카이노에는 제주도 출신자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들에게 의지하러 온다고 합니다.”(6:268)라는 구절은 이카이노의 구성원 태반은 김석범이 고향으로 생각해온 제주에서 이주하거나 밀항해온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들은 “섬을 떠난다고 해도 일본에서의 행선지가 없는,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도 있으니깐요. 그래도 그곳에 있는 열굴도 모르는 동포를 의지해 가고 있습니다.”(11:269)라는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4·3의 비극을 피해 일본으로 밀항한 사람들은 이카이노에 있는 친척이나 모르는 동포에 의지해 일본 사회에 적응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들이 일본에서 기댈 곳은 이카이노 지역의 재일조선인(한인) 커뮤니티 밖에 없는 것이다.

제주인들은 해방 이전부터 오사카로 이주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1921년 무렵부터 제주도에서 값싼 노동력을 도입하기 위해 취항했는데, 기미가요마루가 제주도 출신자를 오사카에 이주시키는 연결고리의 역할은 매우 큰 것이었다.”(2:394)는 서술이 이를 잘 설명해준다. 김석범의 작가적 여정의 출발도 “이카이노 출신 작가들의 문학 출발에는 ‘이카이노’라는 장소가 각인되어 있으며 이들은 끊임없이 그 장소를 기억하고 그곳으로 돌아간다.”<sup>30)</sup>는 지적에 부합된다고 하겠다.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김석범을 조국의 운명과 민족의 진로에 대해

29) 권성우, 앞의 책, 352면.

30) 양명심, 『재일조선인과 ‘이카이노(猪飼野)’라는 장소-재일조선인발행 잡지를 중심으로』, 『동악어문학』 67집, 2016, 163면.

고쳐하는 청년으로 키운 것도 이카이노의 분위기였다. 이에 대해 김석범 작가는 2016년 필자와의 대화에서 이렇게 언급한 바 있다.

저는 어린 시절을 오사카 조선인 부락인 이카이노에서 보냈어요. 식민지 시대에도 제주와 오사카를 오가는 정기 여객선이 있었기에, 그곳에 조선인 부락이 곳곳에 있었고 특히 제주사람들이 많았어요. 유년기부터 일본어를 배우기 전에 조선인 마을 공동체에서 제주도 사투리를 포함한 조선어를 배웠어요. 물론 일본소학교를 다녔지만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와 우리말을 주고받으며 대화했어요. 해방 전에 제주도에 가서, 고모님 댁에서 일 년여 거주하며 조선말을 배우기도 했고요. 당시 제주 성내에 가면 일본말을 했지만, 촌에서는 거의 조선말로 대화했어요. 이런 과정에서 나는 일본사람이 아니라, 조선사람(제주사람)이라는 자각이 어릴 때부터 있었답니다. 일본에서 살면서도 늘 '식민지조선에서 흘러와서 일본에 있는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생각이 짝트곤 했지요. 해방 직전인 1945년 봄에는 징병검사를 핑계로 임시정부가 있는 중경으로 망명하기 위해 제주 성내 북국민학교에서 징병검사를 받기도 했어요. 그때 한라산 관음사에 있었답니다. 물론 그 망명은 실현되지 못했지만요.<sup>31)</sup>

바로 이런 성장기가 있었기에 김석범은 일본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동안 정신적 고향 제주의 비극을 탐사하는 작가가 될 수 있었다. 이카이노 그곳은 “성(姓)이나 국어, 문자를 빼앗겼으면서도 조선의 어머니들은 고향의 토착 방언을 구사했고, 고향 이야기를 전해 주었다. 여기에서는 아이들까지도 고향의 말을 배웠다.”(2:458)고 기억되는 그런 공간이다. 김석범의 더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보자.

이카이노는 내가 태어난 고향이다. 1925년 10월, 지금은 94세이다. 당

31) 2016년 7월 11일 저녁 도쿄 우에노역 근방 한식집 '청학동'에서 이루어진 김석범 작가와의 대화 중에서 따옴.

시 취향한 지 얼마 안 되는 오사카-제주도 사이를 정기 운항하는 '기미가 요마루'를 타고 일본에 온 어머니는 3,4개월만에 나를 낳았다고 한다. 어머니 배 속에 있던 태이는 제주도에서도 숨을 쉬었고, 일주일 넘게 향해 했던 바다 위에서도 흔들거렸다. 졸작 『꿈, 풀 찾기』에는 내가 경계를 건너던 행복하지 못했던 출생 전후와 관련된 이야기가 담겨 있다. (...) 유년기부터 소년기까지 나의 모어는 일본어가 아니라 모유와 함께 주입된 조선, 제주의 말이었다. 집을 드나들던 같은 고향의 여자들 속에서 자라났다. 당시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망국노'로 제국의 차별과 억압 속에서 고독한 자이니치의 생활은 시작되었다. 언젠가는 고향에 돌아가겠다는 타국살이. 동향인을 중심으로 조선인이 모여 사는 지역에는 자연스럽게 소규모모이는 하지만 조선시장이 형성되었고, 이국땅에서 동포의 생활을 묶어내는 마당과 같은 역할을 했다.<sup>32)</sup>

이와 같은 이카이노 공동체의 분위기에서 성장했기에 김석범은 일본어가 모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말을 능숙하게 구사했다. 이렇게 보면 작가 김석범은 이카이노라는 문제적 공간을 외려 치열한 창작의 심리적 동인으로 활용한 것이다.

『화산도』 2권에서 조직의 임무를 띠고 항쟁 자금 모집차 일본으로 밀항한 남승지는 이카이노에 대한 양준오의 관점과 논리를 이렇게 요약한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아무리 일본이 '황민화', '동화' 정책을 강행해도, 한복 착용이나 말을 금지시켜도, '이카이노'와 같은 생명력이 있는 한, 일본 제국의 뜻대로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였다. 그곳에는 한민족의 생활 원형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신비한 생명력으로 계속 살아왔던 것이다. (2:458)

32) 조지현 사진집 『이카이노, 일본 속 작은 제주』, 각, 2019, 104면.

이카이노 지역의 상황과 풍속<sup>33)</sup>은 김석범이 일본에서 살아가면서도, 민족의 운명과 역사에 늘 민감한 안테나를 켤 수 있었던 비결이자 창작의 원동력이었다.

## 5. 경성(서울) 중심지에 대한 묘사

『화산도』에는 제주의 공간 만큼이나 당시 서울의 중심지 공간에 대한 생생하고 세밀한 묘사가 빈번하게 등장한다. 주로 명동, 충무로, 인사동, 남산, 동화백화점, 남대문, 무교동, 충정로(아파트), 태평로에 대한 묘사가 자주 등장하며 삼청동, 현저동, 노면전차, 동화백화점, 다방과 클럽, 맥주 홀에 대한 묘사도 등장한다. 해방 직후 서울 중심부와 그 인근의 공간, 음식문화, 풍속, 거리 풍경, 식민지적 맥락을 『화산도』만큼 세밀하고 풍부하게 형상화한 소설은 드물다. 이와 같은 서울의 근대적 도시 풍속에 대한 묘사는 제주의 풍속과 음식에 대한 토속적인 묘사와 대비되면서 의미 있는 대조가 생성된다.

『화산도』에서 해방 직후 서울의 중심가에 대한 묘사는 단지 공간에 대한 형상화라는 맥락에 머물지 않는다. 예를 들어 동화백화점과 충무로에 대한 다음과 같은 묘사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종로가 조선인들의 변화가였고, 당시 혼초(本町)거리라고 불렀던 충무로는 서울의 중심가, 입구에 지금의 동화백화점 자리에 미쓰코시(三越)가 서 있던 일본인 거리로, 하루 종일 나막신 소리가 아스

33) 조지현 사진집 『이카이노: 일본 속 작은 제주』(도서출판 각, 2019)에는 1965년부터 1970년에 이르는 이카이노 지역의 풍경을 담은 생생한 사진이 수록돼 있다. 원수일의 『이카이노 이야기』(김정혜·박정이 역, 새미, 2006)도 이카이노 문화를 이해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다. 양석일 원작소설 『피와 뼈』를 영화화한 최양일 감독의 〈피와 뼈〉도 오사카 이카이노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문화와 풍속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시선을 제공한다.

팔트 도로 위에 올려 퍼졌다. (5:112)

동화백화점에 일본요리점과 우동집이라. 재빨리도 일본풍이 조선에 상륙한 셈이군. 친일파에 기반을 둔 정부 수립과 관련된 것은 아니겠지만, 화신 경우는 원래가 그렇다고 해도, 동화의 경우는 ‘적산(敵産)’의 불하로 미군정에서부터 구친일파의 매국적 자본에 걸쳐 있지 않은가. (…) 동화의 일본요리는 그렇다 쳐도, 이제는 오로지 일본 앞잡이였던 자들, 일본이 그리워 어쩔 줄 모르던, 일본과 운명을 함께했어야 할 자들에 의해, 이 나라가 건설되고 있다는 입장에 처해 있어. (5:399)

이보게, 방근이, 자넨 동화백화점에 우동집이라든가 일본요리집이 생긴 게 8·15 3주년 기념이라고 웃었지만, 거기에는 일본의 유행가 레코드가 모두 갖춰져 있다더군. 서울은, 그리고 일본에서 가까운 부산 일대는 지금도 왜색에 듬뿍 젖어 있다구. 명동 일대의 골목에는 일본 유행가가 크게 울려 퍼지고, 게다가 나니와부시(浪花節, 의리와 인정을 주제로 한 일본의 전통적인 창·역사)까지 당당하게 흘러나오고 있어. 어떤 나라의 노래건, 노래는 노래지만,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상황을. 해방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일본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고… (5:502)

이전에 미쓰코시(三越) 경성 지점이던 동화는 구친일파의 매판자본가가 ‘적산(敵産)’을, 그들이 섬기고 있던 일본 제국의 재산을, 미군정으로부터 불하받았던 것이다. 그곳 지하에 8월 15일 신정부 수립을 앞두고 일본 요리를 하는 식당가가 생겼다는 이야기는 나영호에게서 들었다. (7:184)

위의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동화백화점은 식민지 시대 미쓰코시 백화점의 경성 지점, 즉 친일문화(건축)를 이어받아 생긴 것이다. 작가는 미쓰코시 백화점이 동화백화점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일본에서 해방된 나라도 ‘일본과 운명을 함께했어야 할 자들에 의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

던 뒤틀린 현대사를 풍자한다. 아울러 해방 직후의 여전히 일본 노래를 비롯한 일본 음식과 문화가 유행이었으며 일본어가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착잡한 사실을 직시한다. 작가 김석범은 『화산도』 내내 식민주의와 친일문화에 대한 확고한 비판적 태도를 표출한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단지 선언적으로 제시되는 게 아니라, 당시 풍속과 일상, 사회생활의 감각에 대한 자연스러운 묘사를 통해 설득력 있게 묘사된다.

해방 직후 경성(서울)이라는 공간을 지배한 식민의 흔적을 면밀하게 탐사하는 저자의 필체는 남산에 대한 묘사에서 한층 생생하게 펼쳐진다.

마침 남대문 주변에서부터 남산의 녹음을 뚜렷이 두 개로 나누는 한줄기 하얀 콘크리트길, 정상에 다가갈수록 긴 계단으로 조성된 길이 보인다. 일제강점기에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神)와 메이지 천황을 제신으로 받들던 조선신궁의 참배 길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5:118)

자동차는 남산의 동쪽 끝자락에 가까운 나지막한 언덕의 기슭에 펼쳐진 주택가로 들어갔다. 한옥이 한 채도 보이지 않는, 모두가 산뜻한 2층 짜리 건물이 늘어서 있는 이 일대는 일찍이 일본인 거주지였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 (5:143)

주지하다시피 남산 지역은 일제 식민지 시대에 일본인 거주지역과 일본군 사령부가 있던 용산과 붙어 있는 지역이다. 남산은 조선 신궁을 비롯한 식민의 흔적이 가장 진하게 남아 있는 지역이다.<sup>34)</sup>(현재도 남영동, 청과동, 후암동 지역에는 식민지 시대에 건축된 일식 적산가옥이 많이 남아 있다). 특히 “조선신궁은 제신의 선정, 입지 선정, 그리고 설계·시공

34) 1925년에 조성된 '조선 신궁'은 해방 직후인 1945년 10월에 해체됐다. '조선 신궁' 터 외에도 남산에는 한양공원 비, 경성신사 터, 노기신사 터, 총감관저 터, 통감부 청사 터 등 다양한 일제의 흔적이 남아 있다.

까지도 조선인의 동화를 목적으로 한 것<sup>35)</sup>이었으며 “식민지의 사람들을 순량한, 궁극적으로는 총량한 제국의 신민으로 탈바꿈시키려는 야심찬 기획”<sup>36)</sup>을 상징하는 장소였다. 『화산도』에서 당시 여전히 남아 있던 조선 신궁에 이르는 참배 길을 묘사한 대목은, 해방 직후에 온존했던 일제 식민지의 흔적에 대한 작가의 경각심을 여실히 보여준다. “군국주의의 정신적 거점”<sup>37)</sup>이라고 볼 수 있는 남산에 서북청년단의 거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설정한 『화산도』의 상상력은 친일과 반공이 한 뿌리에 존재한다는 점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작가 김석범의 ‘공간의 정치학’이자 정치적 무의식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화산도』에 묘사된 식민지 시대의 남촌지역, 즉 명동이나 무교동, 남산, 동화백화점 등은 해방 이후에도 여전히 일본 제국주의의 문화적 잔상이 여전히 남아 있는 공간으로 묘사돼 있다. 이에 비해 북촌에 해당하는 인사동은 아래 예문에서 보다시피 민족주의적 감성이 생생하게 현존해 있는 거리로 표상돼 있다.

인사동 일대는 조선식 가옥이 밀집해 있었다. 일제강점기부터 조선어를 취급하는 오래된 점포와 헌책방이 많은 거리였고, 골동품점이 즐비해 있었다. 또 복잡하게 얽혀 있는 뒷골목 여기저기에는 선술집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고기 삶은 냄새와 마늘 냄새가 코를 찔렀다. 거의 모든 가게가 성업 중이었다. (6:43)

해방 직후 충무로나 명동, 남대문 근방, 무교동, 동화백화점 근방과 비교하면 조선식 가옥들이 들어찬 인사동 골목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었다. 당시 인사동은 “경성의 퇴락한 뒷골목들은 조선인들이 그

35) 김백영, 『지배와 공간: 식민지도시 경성과 제국 일본』, 문학과지성사, 2010, 352면.

36) 토드 A. 헨리, 김백영·정준영·이향아·이연경 역, 『서울, 권력도시: 일본 식민 지배와 공공 공간의 생활 정치』, 산치림, 2020, 23면.

37) 위의 책, 317면.

들의 본거지에서 당해야만 했던 차별과 소외를 여실히 드러내어 보여준다.”<sup>38)</sup>는 지적에서 보다시피 해방 직후에도 거의 변하지 않은 상태였다. 식민지 시대에 존재했던 이른바 북촌과 남촌의 공간적 이분법은 해방 직후에도 한동안 후기 식민주의의 형태로 관철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인사동에도 여전히 일본문화의 잔재가 남아 있었다. 예를 들어 이방근은 인사동을 건다가 “일제 패망 전의 일본 상표를 붙인 가짜 화장품”을 발견하며 “밤거리의 술집에서 일본 유행가가 흘러 나온다.”(6:46)는 사실을 발견한다. 결국 이방근은 인사동 고서점에서 친일 비평가 ‘최 아무개’의 평문이 실린 『국민문학』을 발견한다. 그 고서점은 “해방 전에 발행된 일본의 서적이 유난히 많았다. 흰 표지가 누렇게 바랜 두꺼운 일본의 종합잡지가 진열대 위에 쌓여 있었다.”고 묘사되는 식민의 문화적 흔적이 여전히 존재하는 그런 공간이다. “세계에 관한 경험을 체계화하는 데 실제적이고 일상적인 지식으로 장소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sup>39)</sup>는 에드워드 렐프의 논리를 수용한다면, 『화산도』는 식민의 흔적이 깊이 배어든 경성(서울) 중심부 공간에 대한 밀도 깊은 묘사를 통해, 해방 후에도 여전히 그곳이 식민주의가 작동하는 장소임을 극명하게 환기한다.

김석범은 해방 후에도 강력하게 남아 있는 식민의 잔재에 대한 문제의식을 예각화하는 데 공간과 장소의 상상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김석범 작가는 해방 전과 해방 직후의 서울(경성) 체험과 『화산도』에 수차례 등장하는 동화백화점 묘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해방되기 직전인 일제 말(1945년 3월 말에서 7월초까지)에 안국동에 있는 선학원에 있었다. 해방 후에는 지금 후암동(남산 기슭, 당시 지명: 미사카도리)에서 합숙생활을 했다. 후암동 일본회사 사원들이 살던 숙소

38) 토드 A. 헨리, 앞의 책, 8면.

39) 에드워드 렐프,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25면.



에 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다섯 사람(최진혁, 장용석 등)이 공동생활을 했다. 그때 장용석과 밤새도록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대해 토론했던 기억이 있다. 남산에 자주 올랐다. 1946년 4월부터 아현동 국학전문학교에 함께 입학하여 다녔다. 당시 교장이 정인보 선생이었고 이석구 선생과 동지였다. 『화산도』에 동화백화점 얘기가 몇 번 나오는데, 동화백화점이나 화신백화점에 들어가 본 적은 없다. 충무로 거리는 몇 번 걸어보긴 했다. 동화백화점 묘사는 자료보고 썼다. 제1부 쓸 때는 자료가 거의 없었다. 1988년 1부 이후에 한국에서 해방전후사 관계 책이 많이 나와서 커다란 참조가 됐다. 일본에서 한국 책을 파는 서점이 있었다. 그래서 2부 쓸 때는 자료가 꽤 있었다. 일제강점기 경성부 지도도 보고, 옛날 한국에서 나온 조선신보 등 일제 말, 해방 직후 신문 등을 구해서 보았다. 동화백화점 식당가의 음식 얘기, 예를 들어 삼계탕이 얼마고, 가격, 식당 시간 등은 당시에 발간된 신문 광고를 보고 썼다. 해방 직후에 종로 거리, 즉 종각 쪽에서 동대문까지 자주 걸어 다녔다. 그 당시 단성사에서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 『죄와 벌』이 영화로 상영되고 있었다. 그때 자막이 일본어였다. 그걸 구경하고 나와서 얼어붙은 종로 거리를 혼자서 걸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때는 서울이 아니라 경성부였다. 일상 회화에서는 서울이라고 했는데, 정식주소에는 경성을 사용했다<sup>40)</sup>

당시 경성이라는 공간 체험에 대한 김석범의 생생한 기억이다. 이런 남산을 비롯한 서울 중심가 산책과 체류 체험이 있었기에 김석범은 『화산도』에서 충무로, 남산, 무교동 등지의 풍속과 음식문화에 대해 그토록 생생하고 박진감 있게 묘사할 수 있었다. 『화산도』의 서울(경성) 묘사 상당 대목에는 작가 김석범의 직접체험이 진하게 드리워져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상상력과 소설적 변용도 작용하고 있지만, 『화산도』의 소설적 상상력은 철저하게 역사적 사실과 자료에 근거한다 『화산도』에서 묘사된 공간과 장소는 단지 소설의 무대에 그치지 않고, 작가의 입장과 문체의의식을

40) 2019년 10월 18일 도쿄 쿠온출판사에서 이루어진 김석범 작가와의 대담 내용 중에서 인용함.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탐침, 상징, 표상의 역할을 수행한다.

## 6. 결론

김석범 대하소설 『화산도』는 공간에 대한 작가의 장악과 생생한 묘사, 밀항으로 상징되는 공간 이동의 정념에 대한 형상화가 얼마나 작품을 풍요롭고 의미심장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우람한 문제작이다. 『화산도』는 기본적으로 ‘제주’를 작품의 주요공간으로 하지만 성내, 관음사, 사라봉, 산천단 등 제주의 공간 곳곳과 더불어 서울(경성) 중심가의 거리, 예를 들어 동화백화점, 명동, 충무로, 남대문, 남산, 무교동, 인사동, 현저동 등이 당시 문화적 풍속과 더불어 생생하게 묘사돼 있다. 또한 『화산도』에는 일본 오사카에 있는 재일조선인(한인) 공동체(마을) 이카이노에 대한 묘사가 인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잔혹한 탄압과 학살의 땅을 탈주해,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일본으로 향하는 밀항의 스토리는 『화산도』에 자주 등장하는 주요 모티프이자 핵심 서사이다. 목숨을 걸고 밀항을 선택한 사람들의 마음과 욕망을 이해하는 과정은 곧 『화산도』를 온전히 이해하는 과정과 연결된다.

그렇다면 『화산도』를 제대로 독해한다는 것은 단지 스토리 전개과정이나 내용을 인식하는 차원에서 머물지 않는다. 거기서 더 나가야 한다. 『화산도』 곳곳에 등장하는 해방 직후 제주와 서울의 공간, 그 생생한 느낌과 감각, 문화적 풍속, 공간에 스며든 당대 인간의 욕망, 탄압을 피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공간 이동의 정념을 마음속에 담을 수 있을 때, 대하소설 『화산도』를 온전히 이해하는 길이 열린다. 그 과정은 ‘지금 내가 그곳을 걸어가고 있다면’, ‘지금 내가 이 거리를 산책하고 있다면’ 같은 상상력이 필요하다. 그런 마음의 몰입을 통해 『화산도』를 읽는다면, “남산의 산록을 종로 거리와 마찬가지로 동서로 뻗어 있는 충무로 입구의 동화백

화점 앞에서 내렸다. 미군 서너 명이 제각각 이곳의 여성들과 팔짱을 낀 채 걷고 있었다.”(5:112) 같은 문장이 얼마나 서늘한 정치적·문화적 맥락을 품고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화산도』는 서울 중심부를 비롯한 다양한 장소와 공간, 그곳에 스며든 정치적 무의식과 문화적 맥락을 다시금 천천히 응시하게 만드는 소설이기도 하다.

『화산도』에 나타난 제주, 이카이노, 경성(서울)의 중심부에 대한 탐색과 묘사를 통해, 그곳은 한민족문학사, 한인 디아스포라 문화사에서 의미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게 됐다. 이 점은 작가 김석범이 직접 거주와 공간의 통시적 해석을 통해, 그 공간들의 문화적·역사적 의미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자각하고 있기에 가능한 성과이다. 『화산도』는 한 작품을 온전히 읽는다는 것은 작품 속의 특정 공간을 묘사하고 배치한 작가의 문제의식, 사유, 장소의 인문지리학을 탐구하는 과정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드문 문학사적 사례이다. 그렇다면 『화산도』의 공간 공간은 단지 작품의 스쳐 가는 배경이 아니라, 작가의 문제의식과 정념, 정치적 입장이 온전히 배어든 심상지리 그 자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김석범, 『火山島』 1~12권, 김환기·김학동 역, 보고서, 2015.  
金石範, 『火山島』 I ~ VII, 文藝春秋, 1983~1997.

2. 단행본

고명철·김동윤·김동현, 『제주, 화산도를 말하다』, 보고서, 2017.  
권성우, 『비평의 고독』, 소명출판, 2015.  
권혁태·이정은·조경희 편, 『주권의 야만 밀항·수용소·재일조선인』, 한울, 2017.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지성사, 2015.  
조지현 사진집 『이카이노: 일본 속 작은 제주』, 도서출판 각, 2019.  
나카무라 일성(中村一成), 『사상으로서의 조선적』, 정기문 역, 보고서, 2020.  
나카무라 후쿠지(中村福治), 『김석범 화산도 읽기』, 삼인, 2001.  
미즈노 나오키(水野直樹)·문경수, 한승동 역, 『재일조선인 역사, 그 너머의 역사』, 삼천리, 2016.  
송혜원, 『재일조선인 문학사를 위하여-소리 없는 목소리의 폴리포니』, 소명출판, 2019.  
에드워드 렐프,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윤건차, 박진우 외 역, 『자이니치 정신사』, 한겨레출판, 2016.  
이봉언, 윤상의 역, 『재일동포 1세, 기억의 저편』, 동아시아, 2009.  
이-푸 투안(Yi-Fu Tuan), 구동희 역, 『공간과 장소』, 대운, 2005.  
존 리, 『자이니치-디아스포라 민족주의와 탈식민 정체성』, 소명출판, 2019.  
토드 A. 헨리, 『서울, 권력도시』, 산처럼, 2020.

3. 논문

곽형덕, 『‘망명자문학’으로서의 『화산도』』, 『한민족문화연구』 57호, 2017, 37~61면.  
김동현, 『김석범 문학과 제주-장소의 탄생과 기억(주체)의 발견』, 『영주어문』 35호, 2017, 293~318면.  
김동현, 『공간인식의 코럴리티와 서사적 재현양상 『화산도』와 『지상의 순가락 하나』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53호, 2016, 333~366면.  
김석희, 『자이니치 문학, 헤테로토피아를 살다』, 『작가들』 63호, 2017, 164~173면.  
양명심, 『재일조선인과 ‘이카이노(猪飼野)’라는 장소-재일조선인발행 잡지를 중심으로』

』, 『동악어문학』 67집, 2016, 153~176면.

이영희, 『헤테로토피아로서의 조선인부락이카이노』, 『일본어문학』 75집, 2016, 287~300면.

조경희, 『불완전한 영토, 밀항하는 일상』, 『사회와역사』 106호, 2015, 39~75면.

<Abstract>

## The Meanings of Place and Space in *Hwasando*(*Volcanic Island*)

Kwon, Seong-Woo

In Kim Seok-beom's epic novel, *Hwasando*, his precise portrayal of space and sensitive senses are definitely notable. Space, place, and space movement are very important elements of the story in *Hwasando*. The setting of *Hwasando* covers Gyeongseong(Seoul), Mokpo, Busan, Tokyo, Kyoto, Osaka, Kobe, and Shimonoseki. Exploring *Hwasando* is also the process of exploring the author's awareness of a problem that permeates the space of the work.

In fact, Kim Seok-beom was unable to make an on-site survey, but he wrote *Hwasando* using his memory, imagination, data, and testimony. 'stow away' is frequently mentioned material in *Hwasando*. This work vividly depicts the social and political context in which one has no choice but to choose secret passage and the spirit and desire for secret passage. The vivid description of the secret passage was possible in *Hwasando* because Kim Seok-beom experienced the secret passage firsthand.

What affected Kim Seok-beom as a young man agonizing over the fate of his country was the nationalistic atmosphere of Ikaino, a Korean-town in Osaka. Kim Seok-beom's career as a writer is deeply imprinted with the place 'Ikaino'.

*Hwasando* depicts the center of Seoul, food culture and street scenes right after liberation, in great detail. *Hwasando* clearly reminds us that

South Korea is still a place where the shadows of colonialism linger even after liberation, through its dense portrayal of the space in central Seoul, where the remnants of colonialism have been embedded.

Key words: Kim Seok-bum(金石範), Hwasando(火山島:The volcanic island), space, place, Ikaino(猪飼野), secret passage(密航), Gyeongseong(京城)

투 고 일: 2020년 5월 31일

심 사 일: 2020년 6월 1일-6월 11일

게재확정일: 2020년 6월 12일

수정마감일: 2020년 6월 26일